

농어촌공사, 가뭄 해소 위해 '급수' 지원 나서

✎ 이충열 기자 | ☎ 승인 2022.02.25 10:47

| 가뭄 심한 겨울철 즉시 물 공급으로 농민 시름 덜어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는 남해군의 마늘 및 시금치 등 동계작물재배 농가에 선제적인 급수지원으로 농민의 시름을 들어주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남해군 지역은 작년 11월부터 2월 21일 현재까지 강우량이 거의 없어 심각한 겨울 가뭄으로 관내 동계작물이 고사위기에 처해져 한국농어촌 공사는 긴급히 이들 농가에 급수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남해군 내산지 등 49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평년 대비 강수량은 75.1%로 저조한 실정이나 남해군과 협력하여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남해군 남해읍 등 8개면 446ha에 급수하여 가뭄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에 큰 도움을 주어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재배농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여 '맑은 물 공급 사업지구'를 추진하는 등 타 작물 재배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가뭄극복과 함께 다가오는 본격 영농기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업인 단체와 협력하는 등 농업인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충열 기자 nhsm2020@hanmail.net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